월간 마을기업
발행인 행정안전부

MONTHLY
VOL.7

마 을 기 업

10
2026 October

마을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을 따라가면 마을이 보입니다.
마을을 들여다보면 그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름따라 만나는 우리 동네 마을기업 이야기

장하다
옹기마을

번안 느티나무

하늘별
영농조합법인

모래톱
행복마을

닥밭골
행복협동조합

뫼와구름골

대율한밤마을 대율돌담마을협동조합

소백산자락길

으름실
마을공동체

무섬달
협동조합

개실마을협동조합

달오름마을

곰개나루
협동조합

섬가온
농업회사법인

산동2리

동네마실방뜰
협동조합

잠익는바람길꽃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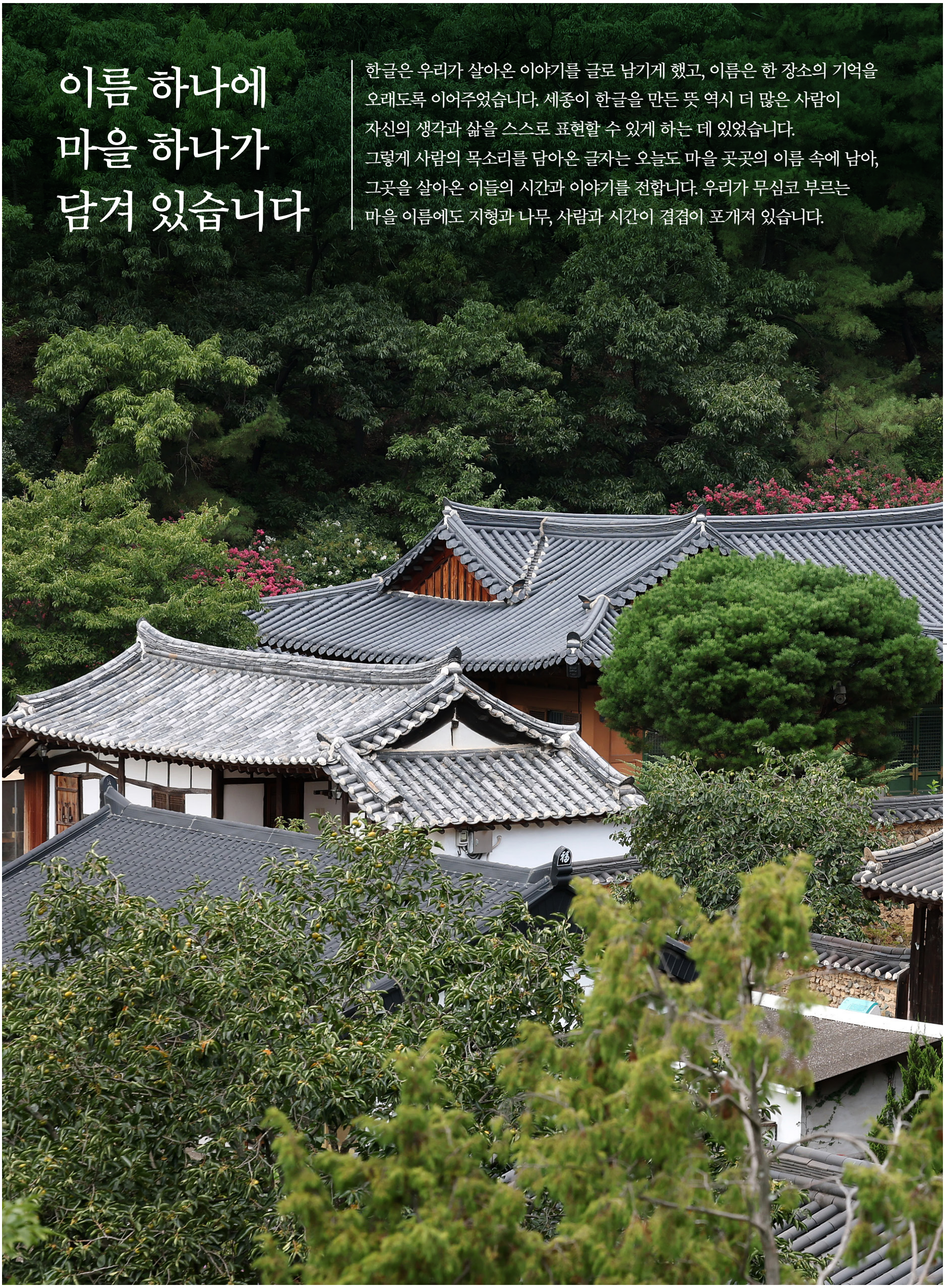
어름박골
쪽빛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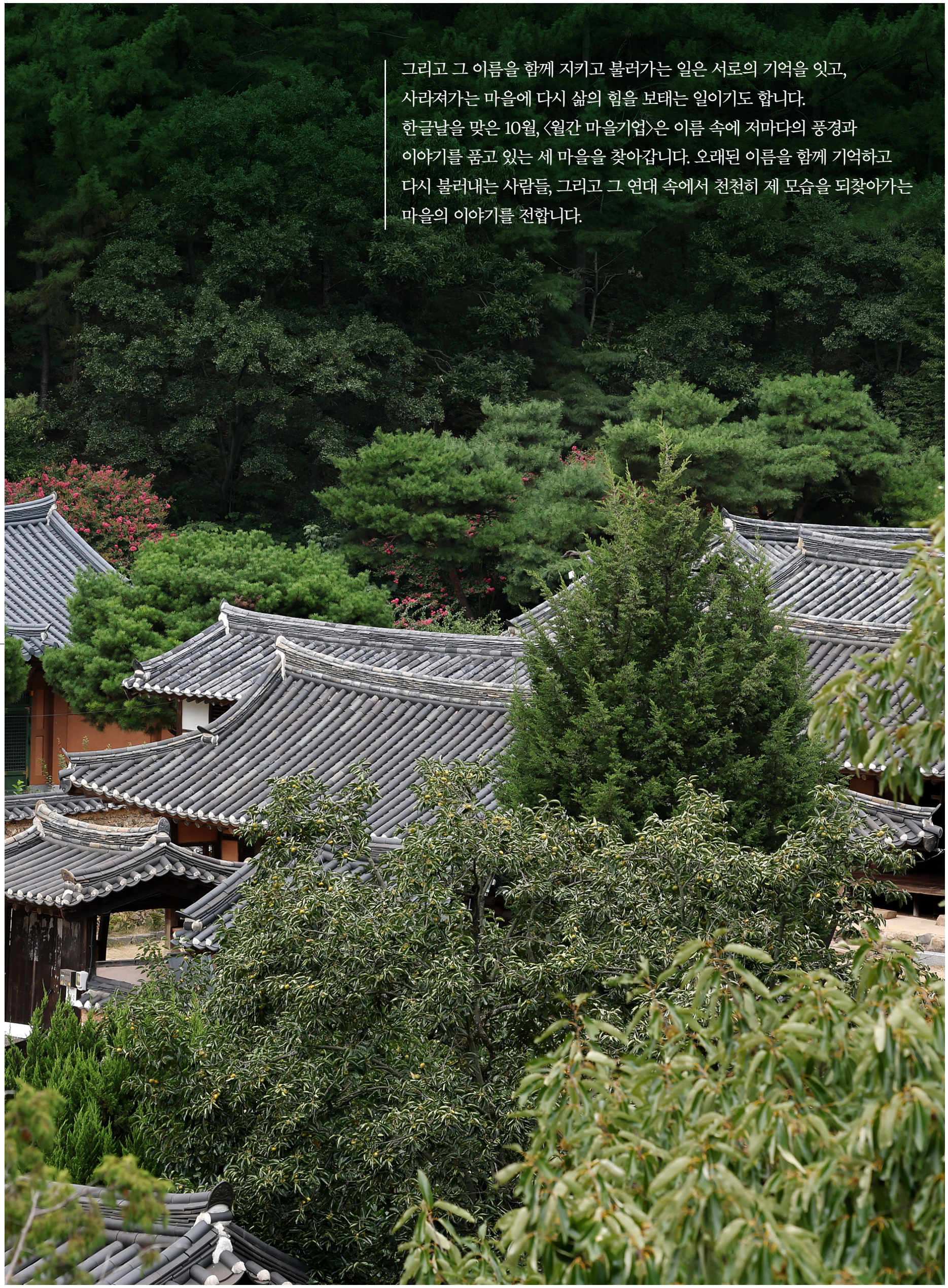
명품옻골1616협동조합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이미지 입니다.

이름 하나에 마을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한글은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남기게 했고, 이름은 한 장소의 기억을 오래도록 이어주었습니다. 세종이 한글을 만든 뜻 역시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삶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목소리를 담아온 글자는 오늘도 마을 곳곳의 이름 속에 남아, 그곳을 살아온 이들의 시간과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부르는 마을 이름에도 지형과 나무, 사람과 시간이 겹겹이 포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함께 지키고 불러가는 일은 서로의 기억을 잇고,
사라져가는 마을에 다시 삶의 힘을 보태는 일이기도 합니다.
한글날을 맞은 10월, 〈월간 마을기업〉은 이름 속에 저마다의 풍경과
이야기를 품고 있는 세 마을을 찾아갑니다. 오래된 이름을 함께 기억하고
다시 불러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연대 속에서 천천히 제 모습을 되찾아가는
마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말이 이름이 되고,
이름이 마을을 기억하게 합니다

옻나무가 많았던 골짜기 '옻골', 천 년의 시간을 품은 '한밤', 꽃 피는 아름다운 골짜기에서 유래한 '개실'. 이름의 시작은 서로 다르지만, 세 마을 모두 오랜 시간 사람들의 삶과 기억을 품으며 오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름을 따라가다 보면 마을의 풍경과 역사, 그리고 그곳을 지켜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연스레 모습을 드러냅니다. 옛 집성촌의 시간을 간직한 이 마을들은 이제 한옥스테이와 다양한 체험을 통해 과거의 가치를 오늘의 삶 속에서 새롭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옻골

옻나무가 자라던 골짜기, 400년의 이름을 잇다

명품옻골1616협동조합

1. 사람의 손길로 가꾼 계절 꽃과 나무가 사시사철 마을 골목을 물들인다.
2. 한옥 한 채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어 숙박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한옥스테이 공간.
3. 마을 초입에 자리한 옻골마을 홍보관.
4. 최중돈 대표가 그리는 내일은 마을 구석구석이 사람의 활기로 가득한 풍경이다.

400년의 삶이 깃든 마을

대구 동구 둔산동에 자리한 옻골마을은 옛날부터 옻나무가 많았던 골짜기라 하여 '옻골'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조선 중기의 학자 대암 최동집이 1616년 이곳에 정착한 뒤 경주 최씨 광정공파 후손들이 대를 이어 살아온 집성촌으로, 어느덧 400년이 넘는 시간을 품고 있습니다. 마을에는 백불고택을 비롯해 수구당, 동계정, 정려각, 비보숲 등 오랜 세월을 보여주는 문화유산과 20여 채의 옛 가옥이 고즈넉한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옻골의 역사는 건물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부터 이웃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어른에게 인사를 건네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혀왔습니다. 최중돈 대표가 이끄는 명품옻골1616협동조합 역시 이러한 공동체의 기억에서 출발했습니다. 400년의 시간을 다음 세대에도 이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오늘의 옻골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한옥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옻골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마을 명소화 사업이 본격화되면서부터입니다. 전봇대가 지중화되고 관광 기반이 갖춰지자 주민들은 스스로 마을의 자원을 활용해 지속가능하게 지켜갈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에 최중돈 대표와 마을 사람들은 2019년 명품옻골1616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카페와 한옥스테이, 체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협동조합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옛것을 그대로 두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의 사람들이 편안히 머물 수 있도록 가치를 새롭게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한옥은 빠르게 낡기 때문에 빈집을 리모델링해 숙박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춘재, 금전고택, 겸헌고택, 백불고택, 화전고택 등에서는 집 한 채를 온전히 사용하는 한옥스테이를 운영하며, 전통주 담그기와 다식, 한복, 서당, 떡메치기 등 마을의 분위기와 어울리는 체험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400년을 위해, 다시 사람이 사는 마을로

명품옻골1616협동조합의 목표는 관광객을 많이 모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고령층이 많은 마을에서 빈집과 공동체 소멸을 막으려면 젊은 후손들이 다시 이곳에서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운영진 역시 앞으로 젊은 후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숙박에 더해 전통혼례와 관례, 전통주와 도자기 체험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꾸준히 마련하고 외부 전문 인력과의 협업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광객이 마을을 찾고 소비한 수익이 다시 마을 관리와 빈집 정비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아가 식당과 체험, 공예 등 각자의 재능을 살린 일자리가 마을 안에서 생겨나 새로운 주민과 후손을 불러들이기를 기대합니다. 명품옻골1616협동조합이 준비하는 '다음 400년'은 결국 다시 사람이 살고,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만드는 일입니다. 마

#한밤

천 년 돌담에 사람의 온기를 다시 쌓다

대율돌담마을협동조합

돌을 걷어내며 만든 천 년의 마을 풍경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한밤마을은 이름부터 오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본래 '깊은 밤'을 뜻하는 우리말 '한밤'을 한자로 옮겨 '대야(大夜)'라 불렀고, 뒤에는 같은 '밤' 소리를 지닌 '율(栗)' 자를 써 '대율(大栗)'로 바꾸었다고 전합니다. 사방을 산이 둘러싼 깊은 분지라는 지형도 '한밤'이라는 이름과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습니다.
마을을 대표하는 풍경은 약 10리에 걸쳐 이어지는 돌담입니다. 팔공산에서 흘러내린 물과 오랜 산사태로 쌓인 둥근 돌을 주민들이 삶터와 경작지에서 걷어내 담으로 쌓으면서 오늘의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반듯하게 다듬은 돌이 아닌 제각기 생긴 돌을 포개 만든 담은 낮고 소박합니다. 담 너머로 이웃집 마당이 보이고, 길목에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까지 담의 일부로 품었습니다.
돌담길을 따라 걷다 보면 한밤마을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큰 규모와 오랜 역사를 간직한 남천고택은 한옥과 돌담, 대나무숲이 어우러져 고즈넉한 풍경을 만들고, 대율리 대청에 오르면 열린 마루 사이로 팔공산 자락과 마을의 기와지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마을 깊숙이 들어갈수록 이끼 낀 돌담과 소 한 마리가 지나갈 만큼 좁은 골목이 이어져 천 년 마을의 일상을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낮은 담 너머로 이어진 이웃의 정

홍충헌 대표는 집과 집을 잇는 소담한 담장 위에 마을 사람들이 살아온 방식이 그대로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서로의 마당이 보일 만큼 가까이 살며 농작물을 수확하면 이웃집에 나누고, 마을에 경사가 생기면 농악을 울리며 함께 기뻐하던 곳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자녀들은 도시로 떠나고 주민들의 평균 연령도 높아졌지만, 마을에는 여전히 사람을 불러들이는 힘이 남아 있습니다. 돌담길과 고택, 팔공산의 풍경을 보기 위해 관광객이 꾸준히 찾아오고, 협동조합은 이를 계기로 마을의 매력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한밤 돌담마을 힐링축제'를 열어 돌 그림과 향나무 키링 만들기 체험을 선보이고, 주민들이 배운 목공 기술을 활용한 기념품과 조명 개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사라졌던 농악도 다시 배우며 마을의 옛 흥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스쳐 가는 곳에서, 머무는 마을로

한밤마을은 이곳을 지나는 마을이 아닌 머무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빈집과 마을 공간을 활용한 스테이를 하나씩 마련해 한밤마을에서 더 오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는 관광객은 물론 다시 마을을 찾는 출향민에게도 의미가 큽니다. 여러 가족이 함께 머물 장소가 생긴다면 떠난 사람들에게도 다시 고향을 찾을 이유가 생깁니다. 장기적으로는 젊은 세대가 식당이나 체험, 새로운 아이템을 들고 마을에 들어와 삶을 꾸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 년 동안 돌을 하나씩 포개 길과 담을 만들었던 마을. 이제 대율돌담마을협동조합은 그 아름다운 풍경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잠시 둘러보는 마을에서 다시 찾고 오래 머무는 마을로 한밤의 다음 시간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마

1. 마을의 학사(學舍)이자 주민들의 모임터 역할을 해온 대율리 대청.
2. 산자락에서 내려온 돌을 차곡차곡 쌓아 소담한 정취를 자랑하는 대율리 돌담길.
3. 마을의 자연유산과 체험 콘텐츠를 결합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홍충헌 대표.
4. 선시대 전통 가옥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군위군 최고(最古)의 고택, 남천고택.

개실

사람을 맞이하며 다시 꽃피는 마을

개실마을영농협동조합법인

꽃 피는 골짜기, 사람을 향해 문을 열다

개실마을을 찾은 사람들은 종종 '할머니 집에 다녀온 것 같다'는 말을 남깁니다. 한옥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엿을 만들고, 마을길을 걷는 동안 주민들은 손님을 손자·손녀처럼 맞이합니다. 손님의 밥상을 살펴 기꺼이 음식을 나누고, 떠나는 손님은 따뜻한 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편지로 남기기도 합니다. 김민규 대표가 말하는 개실마을의 가장 큰 경쟁력도 바로 이런 사람의 정입니다.

고령군 쌍림면 합가1리에 자리한 개실마을은 점필재 김종직 선생의 후손들이 400여 년 동안 살아온 집성촌입니다. 예부터 꽃이 많이 피고 골짜기가 아름다워 '가곡', '개화실'이라 불렸고, 그 이름이 변해 오늘의 '개실'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화개산을 등지고 한옥과 돌담, 종택과 고택이 어우러진 풍경에는 오랜 종가마을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1. 체험과 스테이를 통해 마을의 유·무형 유산을 이어가고 있는 김민규 대표.
2. 개실마을의 특산품인 수제 딸기잼과 전통 엿.
3. 마을 곳곳에는 숙박객들의 손길로 완성된 장식이 남아 있다.
4. 전통 한옥의 정취를 고스란히 살린 스테이 공간.
5. 주변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대청마루.

사람이 들어오자, 마을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개실마을에 큰 변화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 들어 농촌체험마을로 문을 열면서부터입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맞고 체험을 운영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골목에 사람들의 웃음이 스미면서 마을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한때 연간 방문객이 5만 명에 이를 만큼 이름을 알렸고, 현재도 많은 도시민이 찾는 대표적인 농촌체험마을로 자리 잡았습니다.

개실마을 곳곳에는 다양한 놀이와 체험이 가득합니다. 직접 농사지은 쌀과 조청으로 만드는 엿 만들기를 비롯해 한과 만들기, 딸기 따기, 떡메치기, 한지공예, 농촌생활 체험 등을 운영합니다. 한옥스테이에 머물며 옛집의 정취를 느끼고, 처마 아래로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을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체험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은 주민과 방문객 사이에 쌓이는 관계입니다. 주민들은 손님을 가족처럼 챙기고, 그렇게 마음을 나눈 손님들은 다시 개실마을을 찾습니다.

사람이 찾아오면서 주민들의 삶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체험과 숙박이 일거리와 소득으로 이어졌고, 어르신들에게는 집 밖으로 나와 함께 일하고 사람을 만날 이유가 생겼습니다. 마을을 찾는 손님이 늘수록 주민들 역시 '우리가 사는 곳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곳'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개실마을이 관광객을 맞으며 얻은 것은 단순한 수익을 넘어, 다시 살아갈 힘에 가까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고향,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집

이제 개실마을은 이 온기를 다음 세대까지 어떻게 이어갈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체험과 숙박을 이끌어온 주민들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젊은 세대가 마을 안에서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김민규 대표는 개실마을을 찾는 사람들이 "외할머니 댁에 온 것처럼 편하게 쉬다 갔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고향이 있는 사람에게는 다시 돌아올 이유를, 고향이 없는 사람에게는 마음 놓고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는 곳. 오래된 집성촌은 사람을 받아들이며 달라졌고, 그 사람들의 온기는 다시 마을을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개실마을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또 하나의 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있는 한,
마을의 이야기도 계속됩니다

옻골의 400년 고택, 한밤의 천 년 돌담, 꽃 피는 골짜기 개실.
오래된 이름 속에 담긴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마을의 풍경을 바라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안에서 하룻밤 머물며 사람과 시간을 만나보세요.

머물며 쉬어 가는 옻골

"오래된 집을 지키는 일은 결국
사람의 삶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시 이 마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싶습니다."

명품옻골1616협동조합
최중돈 대표

명품옻골1616협동조합은 400년 고택과 공동체의 기억을 오늘의 삶으로 잇습니다. 한옥스테이와 체험, 마을 재투자를 통해 오래된 집에 다시 사람이 머물고, 다음 세대가 돌아올 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갑니다.

400년 돌담과 고택을 걷고
한옥에서 밤을 보내는 시간

백불고택을 비롯한 옛 가옥과 돌담길을
천천히 둘러보고, 고즈넉한 한옥에서
하룻밤 머물러보세요.
오래된 집에 다시 사람이 깃드는 순간,
옻골의 400년 시간도 오늘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걷고 느끼는 한밤

"고향을 떠난 사람도,
처음 찾아온 사람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끈 하나는 남겨두고 싶습니다.

대율돌담마을협동조합
홍충헌 대표

대율돌담마을협동조합은 천 년 돌담과 한옥, 팔공산이 어우러진 한밤마을의 풍경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축제와 체험, 머물 공간을 하나씩 더하며 스쳐 가는 마을이 아닌 다시 찾고 싶은 고향 같은 마을을 꿈꿉니다.

천 년 돌담 사이에서
이름과 마을의 시간을 읽는 산책

팔공산 아래 굽이굽이 이어진 돌담길을 따라
상매댁과 대율리 대청, 오래된 한옥 풍경을
만나보세요. 낮은 담장 사이를 걷다 보면
천 년 동안 이곳에 쌓인 자연과 사람의 시간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놀며 쉬며 만끽하는 개실

"우리 마을에 오시면
외할머니 댁에 온 것처럼
편하게 쉬었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실마을영농협동조합법인
김민규 대표

개실마을영농조합법인은 오래된 종가마을의 문을 열어 사람과 사람을 잇습니다. 한옥스테이와 농촌체험에 마을 주민의 따뜻한 환대를 더해, 도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고향을, 주민들에게는 다시 함께 살아갈 힘을 만들어갑니다.

한옥에서 머물며
전통음식과 놀이를 경험하는 하루

한옥에서 머물고, 엿과 한과를 만들고,
계절마다 이어지는 농촌 체험과 전통놀이를
즐겨보세요. 주민들의 따뜻한 환대까지 더해져,
여행이라기보다 오래 알고 지낸
고향집에 다녀온 듯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이미지 입니다.